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주님은 힘

김영문 브루노 신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보다 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내 힘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방관자이고 하실 일이 없습니다

갈등하는 자신을

불안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느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신앙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0/02/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36,650

현재 기부 금액 - \$ 36,130

현재 참가 인원 - 86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36

예물 준비 성가 : 226, 221

성체 성가 : 166, 170

파견 성가 : 418

연중 제26주일(9/28)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4명

60명

207명

205명

35명

561명



가톨릭 운동의 대중화와 해외 선교 활성화를 이룬

‘선교 교황’ 비오 11세(1922~1939)

1922년 1월 6일 교황직에 오른 비오 11세(1922~1939)는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베드로 광장과 로마시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향해 첫 공식 강복을 주는 파격을 보였다. 레오 13세, 베네딕토 15세 등 선임 교황들이 교황령 상실로 교황직의 외적 정치적 세력이 사라진 처지를 반영하듯 베드로 대성전 안에서 가졌던 강복예절과 비교할 때 “모든 이의 아버지요, 교회의 아버지”라는 보편적 교황직의 의미를 새롭게 천명하는 상징적 의미가 아닐 수 없었다.

비오 11세는 “선교 교황”, “가톨릭 운동의 교황”으로 불릴 만큼 가톨릭 운동을 가장 대중화시켰고 또한 비약적 선교 활성화를 이뤘던 교황이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구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체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에 인류를 통합시키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았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Pax Christi in Regno Christi)를 모토로 삼았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왕 사상에 대한 생각은 1925년 발표된 회칙 『Quas Primas』를 통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제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에 적대적인 세계 안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기를 기대하는 원의가 담겨있었다. 더불어 교황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개인, 가정, 국가 안에 침투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담아 문서들을 발표하였고 회칙 『Misericordissimus Redemptor』를 통해서 성심 공경을 통한 기도의 효험과 보상 개념을 설파했다. 즉 세상의 구세주께로 마음을 전환하라는 메시지였다.

가톨릭 운동을 “교회의 교계적 사도직에서의 평신도들의 협력과 참여”라고 정의했던 그는 이러한 사도직 개념을 통해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을 새롭게 고찰하려 노력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사회를 그리스도교화 하려고 시도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평신도들을 조직하는데 관심을 두었으며 평신도 운

동이 보다 전문화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요청했다.

특히 비오 11세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청년 조직 J. O. C 활동을 적극 격려하기도 했다. 선교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쏟았던 비오 11세는 평신도들을 선교 현장에서 배제하지 않았으며 모든 수도회들이 해외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한 예로 그의 재위기간 중 선교사 숫자는 이전에 비해 배로 증가했다. 교황 서거 당시 선교지역에서의 지역 사제 숫자는 2,670명에서 7,000명으로 증가해 있었고, 200개의 대리구가 설정돼 있었다. 또한 회칙 『Rerum Ecclesiae』에서 현지인 성직자 양성과 토착교회 발전을 위한 주교 역할을 강조, 해외선교의 새로운 토대를 놓았으며, 1926년 10월 첫번째 중국 주교 6명과 1명의 일본 주교를 서품한 것은 그의 선교 정책이 효과를 거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교황은 신학 과목 중 선교학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했고 그레고리안 대학교에 선교 신학부를 설치, 포교성 소속의 선교학원을 세웠다. 한편 역사가들과 전례학자들에게는 동양 그리스도교를 연구하게 했으며 동방 교회법전을 편찬하도록 준비시키는 등 열정을 보였다. 비오 11세의 대외적인 정책면에서 중요한 사건은 1929년 라테란 조약을 체결, 1870년 이래 현안으로 대두됐던 “로마 문제”의 해결을 들 수 있다. 이 조약은 “바티칸 시국” 건설에 관한 협정과 이탈리아와 교황청 간의 정교 조약을 포함한 것으로써 바티칸 시국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주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토를 보장받는 내용이었다.

가톨릭 정기 간행물들에 대해 호의적 입장을 지녔던 교황은 간행물들이 폭넓은 계층의 견해를 담을 수 있도록 독려했고 파시스트들의 엄격한 법안에서도 가톨릭 언론이 자유롭게 남도록 장려했다. 한편 동방교회와의 일치를 위해서도 노력했던 교황은 학문과 예술을 숭상했으며, 그레고리오 대학교를 증설, 성서 학원과 동방 학원을 겸하게 하면서 사도헌장 「Deus scientiarum



Dominus」를 통해 교회 학문을 대학 수준으로 높였다. 또 그리스도교 고고학 학원을 세웠으며, 바티칸 도서관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 가톨릭 대학교들(밀라노 예수 성심대학교 등)을 세우도록 했다.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회칙 『사십 주년』도 비오 11세 교황의 업적에서 기억될 만한 사항이다. 그는 세계대전으로 사회 불의의 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새로운 사태』에서 찾았고, 그 연장선에서 작성된 『사십 주년』은 새로운 사회 질서의 재건을 요청하면서 사회적 반성을 야기시킨 촉매제가 되었다. 이 회칙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는 “보조성 원리”와 같은 사회교리의 기초적 요소들이 대두될 수 있었다.

한국 교회와의 관련성을 본다면 교황 재임 시 미국의 메리놀 외방선교회가 1922년 교황청으로부터 평안도 포교권을 위임받았고, 1923년 5월 평양교구 창설 준비책임자로 내한한 번 파트리시오 신부를 초대교구장으로 임명했다. 1925년 한국인 순교자 79명의 시복식도 비오 11세 교황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한정현 주교님과과의 만남으로 인해 10/16(목) 오후 7:00, 10/17(금) 오전 10:00 미사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10/4(토)-10/5(주일)에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Black and Indian Mission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흑인과 인디언을 위한 복음화 프로그램과 교구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 기도 50만 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7/1/2025 ~ 8/31/2026
● 대상: 전신자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 행사와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10/5(주일) 10시 미사
추석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되는 당일(10/5) 오전 8:00, 11:30 미사는 없습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재정 관련 오리엔테이션

● 일시: 10/12(주일) 오후 1:00
● 장소: 101호 교리실
재정위원회에서 최근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한 감사 내용 공유와 교구 방침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 관리 및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각 분과장, 단체장, 회계 담당자(필수)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10/12(주일)
● 음식 봉사: Mukilteo 구역
● 메뉴: 배추 된장국 + 어묵 조림

6 Safe Environment Manager 모집

본당 Safe Environment를 관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부모 교육 프로그램

● 대상: 자녀를 둔 30~40대 부모, 선착순 20명
● 일시: 10/11, 10/18(토) 4PM(2시간) 이후 미사 참례
● 강사: 신정희 교수(아동학 박사, 아동청소년 상담 전공),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임
● 참가비: \$10
● 신청: 본당 사무실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8 베드로회 회원 모집

베드로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70세 이상의 남성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양대석 엘리야 206-334-7050

9 시사 영어 특별 강의 안내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인 신자분들을 위한 강의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최신 시사와 건강 관련 뉴스를 주제로 쉽고 친절하게 영어를 지도해 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일시: 매주 금요일 11am-12am 10시 미사 후
● 강사: 송인성 베드로(PhD)
● 장소: 101호 교리실

입당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1독서 요엘 2,22-24.26 그르코
<타작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리라.>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2독서 요한 14,13-16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리라.>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15-21
<사람의 생명은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전윤원 장병돈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한천혜 신철순 이영수 이지연 박채룡 한정순 광영준 최혜경 지유선 유주연 이순욱 김경자 이상철 서진원 홍종미 박수익 김기문 윤명진 한경순 장병순 호명규 김영환 정순도 이택래 김창문 신길하 정혜영 이태경 공세진 이경원 황수택 백성진 황성만 서용원 이진만 천기전 이승호 박근조 김병민 차상철 임대근 조그레이스 Sun Ki Choe

[교무금 PushPay] 이항기 윤성욱 오영주 윤법영 강철권 정재열 이종일 유미림 장경화 조성욱 최금희 주성택 이혜진 황현선 정승범

[감사 헌금] 정순도 이명희 David Chun **[달력 광고]**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황바로 바오로 CPA **[주보 광고]** 리나 웰니스 클리닉 **[꽃 봉헌]** 김금숙

주일 헌금	교무금	PushPay	Special Collection(2차헌금)	감사 헌금	달력/주보 광고비	꽃봉헌
\$6,438.00	\$14,480.00	\$3,215.08	\$200.00	\$340.00	\$1,250.00	\$20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원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 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atering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30/25) 유야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8/25)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시성에 즈음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7일, 레오 14세 교황께서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를 시성하십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 옷을 입은 하느님의 사람’인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1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뜻깊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1991년 5월 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부모가 곧 이탈리아 밀라노로 이주함에 따라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평범한 청소년이었지만, 비범한 신앙생활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곱 살에 첫영성체를 한 다음부터, 날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복자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었는데, 그 재능을 하느님의 영광과 복음을 널리 알리는 데 썼습니다. 특히 ‘성체의 기적’에 관한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전 세계에 성체 신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성체성사는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L'Eucaristia è la mia autostrada per il cielo.)”는 복자의 깊은 성체 신심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입니다.

2006년 10월 12일,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자는 자신의 고통을 교회와 교황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2020년 10월 10일 카를로 아쿠티스를 복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자는 2025년 희년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수호성인’이라 불리는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인터넷의 특수한 환경에서 선교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방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인터넷을 오락이나 소비의 도구로 쓰기보다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활용하는 본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시성은 다음과 같은 큰 희망과 함께 도전 의식도 일깨웁니다.

첫째, 나이에 매이지 않은 성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과 경쟁의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이러한 청소년기의 일상에서도 하느님을 으뜸으로 삼고, 기도와 성사 생활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선교의 모습입니다. 정보 기술에서 세계적 강국인 한국의 청소년들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는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복음화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셋째, 성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중요성입니다. 한국 교회는 오랜 순교 역사 속에서 성체 신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성체 신심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성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시성을 맞아, 한국 천주교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향을 제시합니다.

1. 각 본당과 교구에서는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에 관한 교육과 신심 행사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그의 삶과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이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3. 청소년들의 성체 신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체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모범을 따라, 일상에서 성덕을 추구하도록 청소년의 신앙 교육을 강화합니다.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시성은 우리 시대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의 삶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비범한 사랑과 신앙으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희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시성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카를로 아쿠티스 복자의 전구를 청하며, 그의 모범을 따라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Christus Vivit], 106항)-카를로 아쿠티스.

2025년 9월 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김 종 강 주교